

## 자비의 희년 기도문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서로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볼수 있도록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을 저희에게 보이시어 저희를 구해 주소서. 당신께서 자케오와 마태오를 금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신것 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간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은 것 처럼, 베드로가 배반후에 속죄한것 처럼 죄를 뉘우친 도둑처럼 저희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아버지의 권능을 용서와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성부의 형상이옵니다.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하신것 처럼 우리가 서로를 들을수 있도록 해 주소서. 교회가 당신의 얼굴이 되어 이세상에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들어내게 하소서

당신의 교회가 약한이를 보호하게 하시어 소외된이들에게 저희의 마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서로 다가 갈수 있게 해 주소서.

당신의 영혼과 축복을 병으로 아파하는 모든이에게 내려 주시어 자비의 희년이 주님의 영광, 교회열정의 제확인, 가난한이들에게 기쁜소식, 갇힌이에게 자유와 눈 먼이에게 빛을 다시 보게 해 주소서

어머니의 자비와 성모 마리아의 중재를 구하며 성부와 성령이 영원히 머무르소서. 아멘



### 아버지와 같은 자비

모토 "너희 아버지 께서 자비하신 것 처럼" (루카 6:36) 은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보다 아버지 자비의 본으로 따르는 우리를 초대 합니다.그러나 용서와 사랑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좋은 목자는 자비와 인류애로 그들을 하나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께서는 아담의 눈으로 아담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십니다. 모든이는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담을 발견 하고 미래를 향합니다.

안의 그림은 스티브 해롤드 와 스티브 리 작품입니다.

### 제임스 대성당

804 Ninth Avenue  
Seattle, WA 98104

전화 206-622-3559  
팩스 206-622-5303

[www.stjames-cathedral.org](http://www.stjames-cathedral.org)

## 자비의 길



제임스 대성당  
Seattle

# 자비의 길 : 제임스 주교좌 성당에서 혼자서 참배하기 위한 안내

당신은 대성당 곳곳을 다니며 침묵속에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하고 자신을 비취볼수 있도록 초대 되었습니다. 이 자비의 길은 대성당의 각별한 일곱 군데를 다니면서 자신을 비취 볼수 있도록 당신을 초대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이끄심과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수 있는 기회와 참배기념의 전통적인 의의 양면을 담고 있습니다. 기쁨의 관용을 얻기 위해서는 제임스 성당을 오시기 며칠전 또는 다녀 가신후에 고해성사와 성체를 하시기를 권유 합니다.

자비의 해 기도로 시작합니다.

## 1 자비의 문

대성당의 청동문은 2000년에 대희년을 알리며 처음 열려 졌습니다. 지금 살던 주교님께서 자비의 희년을 상징하는 성문으로 지정 하셨습니다. 이 문은 예전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여주시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 해주며,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의 환영을 구원 합니다.



하느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나는 내가 자비를 베푸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푸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9:15-16)

내가 자비의 문을 들어서면서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크게 기뻐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오늘 기도하는 우리와 죽은 모든이에게 내리길 청합니다. 하느님께 나의 모든 인간관계에 좀더 많은 자비를 내려 주시길 청합니다.

## 2 성수반

초기 신부님들은 성수반을 " 교회의 모태"라 일컬었습니다. 지금 새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죄사함과 새 삶을 구하며 물에 담급니다. 우리는 성당에 들어설때 마다 성수를 찍으며 우리의 세례와 신앙 그리고 하느님과 다른이를 위한 나의 삶을 다시한번 되 세겨 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해 잉태 되어 낳시고 죽 으시며, 다시 부활하시어 성부 오른편에 앉으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성인들의 통공,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함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멘 (세례예식)

성수반곁에 서서 기도합니다. 내삶이 세례로 충만해 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 좀더 자비로와 지기를 기도 합니다.

## 3 성 요한 23세

대성당의 최신의 성스러운 곳은 성 요한 23세를 모셔둔 곳 입니다. 성 요한 23세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1962-1965)를 소집하신 교황님 이십니다. 자비의 희년은 공의회와 연결 됩니다. 이것은 2015년 12월 8일, 바티칸 2차 공의회 마감50주년을 기념합니다.



오늘 교회는 엄격함 보다는 자비의 치유를 써야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모든이의 유순함, 인내, 충만한 자비와 어린이들에게 전해주시는 선량함으로 사랑의 어머니로 보여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 성 요한 23세 바티칸 2차 공의회 개회사중 1962년 10월 11일)

이 성요한 23세의 성스러운 곳에서 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해 기도를 바칩니다.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자비의 길로 이끄실수 있도록 건강과 힘을 내려 주시도록 하느님께 기도 합니다.

## 4 제대

.선조들은 "제대가 곧 그리스도" 라고 말합니다. 제대는 어느 성당을 막론하고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중심" 입니다. 대성당 제대위에 예수님의 말씀 "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루카 22:27) 여기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이를 돕는 안에 그분을 찾도록 우리를 초대 하십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느님! 나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크신 자비로 인하여 죄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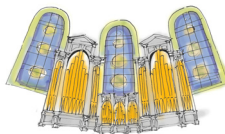


며 당신의 부족한 종인 나를 당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몸과 피로써 양육하여 주시니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제대앞에 서서 내 삶안에 성체를 모실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제대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함께 축일을 지낼 날이 올수 있길 기도 합니다.

## 5 자비의 창

대성당 제실 동쪽창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자비의 성체포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 중앙은 우리에게 우리의 세례는 자비로 우리를 불러 주심을 상기 시켜 줍니다. 낮선이에게서, 굶주림, 목마름과 구속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오 25:40)

하느님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자비로운 사랑을 감사하며 자비로운 새해를 다짐해 봅니다. 종교교 성체를 통해서 굳은 자비의 길을 찾기를 노력 합니다.

## 6 감실

감실은 모세 이야기에 나오는 타오르는 덩불을 상징합니다. 타오르지만 사로잡지 않는, 모세가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난 것 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끝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성체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주님께서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 하셨다.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별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삼대 사대 까지 별한다." (탈출기 34:6-7)

교회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경험하며 스스로를 돌아 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느님 자비의 면모를 모든이게 보여줄수 있도록 기도 합니다.

## 7 동정 마리아의 성지

마리아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십니다. 창세기 이야기에 나오는 사과를 생각해 봅니다. 무거운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완전한 용서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언제나 어떠한 죄보다도 더 크므로 그 누구도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며, 당신 율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 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 순례의 마지막에 이 기도가 나의 삶과 교회안에서 열매 맺을수 있도록 성모님의 전구를 간구 합니다.

자비의 희년 방문 마지막에 주모경을 받칩니다.